

웰컴 투

개성공단

www.kidmac.com



01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며



- 1 공사 착공전 개성공단 전경
- 2 개성공단이 모습을 갖추기 전 건설초기 모습



master plan

개성공단 사업은 남측의 기술·자본과 북측의 토지·노동력이 결합한 남북경협 대표사업이다. 남과 북이 맞잡은 손은 공동번영과 평화라는 희망을 만들어내고, 끊어졌던 도로와 철도를 이어붙였다. 문산과 개성공단을 연결하는 경의선을 타고 한반도의 심장부인 개성공단은 동북아를 넘어 세계를 향해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다.

개성공단 사업은 2000년 8월 현대와 北아태평화위원회가 개성공단 개발합의서를 체결함에 따라 첫 발을 내딛게 됐다. 2002년 11월 북측이 ‘개성공업지구법’을 발표하면서 개성공단은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 2003년 착공식, 2004년 6월 시범단지 입주업체 15개 기업이 선정돼 가동에 들어갔으며 2004년 12월 첫 제품이 생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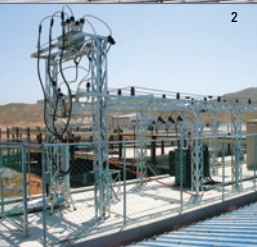
총 2,000만평을 대상으로 3단계로 개발될 개성공단은 우선 1단계 100만평에 봉제, 신발, 가방 등 주로 노동집약적 업종이 들어서며 남북경협 기반 구축을 위한 첫 시험무대가 될 것이다.

한편 개성공단 2단계 이후 사업은 1단계 사업 성공의 토대위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기술집약적 공단, 첨단산업 분야의 복합 공업단지로 조성해 나갈으로써 개성공단을 남북경협의 거점으로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제조업 중심지로서 발돋움 시켜 나갈 것이다.

목 차

- 01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며 _ 4
- 02 개성공단은 기업들의 '기회의 땅' _ 10
- 03 북측 근로자들의 '희망의 땅' _ 12
- 04 어떤 제품이 생산되나 _ 16
- 05 월경 투 개성공단! _ 24
- 06 개성공단은 평화특구 _ 30
- 07 세계적 공단으로 도약 _ 34

01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며



1-5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열어 힘차게 맥박치고 있는 희망의 땅 개성공단. 남과 북을 가로질러 전기와 통신이 연결되고, 공정이 이어지고, 기계가 돌아가면서 개성공단은 날마다 작은 기적을 이루내고 있다. 기반시설 등 3단계 공사가 완공되면 개성공단은 세계적 공단으로 우뚝서게 될 것이다.

01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며



또 개성공단은 문산-개성 27.3km 구간의 경의선이 연결되면서 날개를 달았다. 개성공단의 물류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도라에만 의존해온 물자, 생사품 등의 대량운송이 가능해지고 시간도 대폭 단축할 수 있게 되면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경의선은 중장기적으로 한반도중단철도(TKR),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이어져 개성공단이 동북아 물류거지로 거듭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머지 않아 개성공단의 제품들은 경의선을 타고 세계시장을 휩쓸 것으로 기대된다.



the Gyeongui line



- 1 경의선 침묵에 한국인의 통일을 염원하는 글을 남기는 부시 미국 대통령
- 2 경의선 남측 최북단역인 도라산역에서 연설하고 있는 부시 미국 대통령
- 3 개성공단에서 대륙을 횡단하여 유럽까지, 경의선과 TKR, TCR, TSR을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가 완성되면 개성공단은 세계 물류의 중심이 된다
- 4 문산-개성 27.3km,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며 남북 공동 번영을 향해 함차게 벌은 경의선 철도
- 5 북측 경의선 육로 연결 공사 구간중 2003년 1월 말에 완공된 사천강 철교 구간

02 개성공단은 기업들의 '기회의 땅'



개성공단은 뛰어난 입지, 저렴한 분양가, 다양한 세제혜택, 양질의 노동력 확보 등 매력적인 기업 환경을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 남북 당국의 강력한 개발의지가 기업에겐 가장 큰 힘이다.



개성공단은 서울에서 1시간 거리인 60km, 평양에서 2시간 거리인 160km에 위치,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 인천공항, 인천항 등 세계적 물류기지를 확보하고 있고 향후 시베리아횡단철도, 중국횡단철도와 연결되는 등 외국기업들의 진출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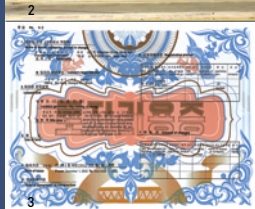
개성공단 입주자격은 남측 및 해외동포 · 외국법인 · 개인 · 경제조직으로, 공업 · 건설 · 과학기술 · 상업 · 금융 등 여러 부문에 투자 가능하다.

토지는 분양 또는 양도를 통해 취득이 가능하며 2004년 4월 12일을 기준으로 50년간 이용할 수 있다. 토지는 매매, 증여, 상속, 임대 등 재산권이 보장되며 평당 분양가는 14만 4,900원이다. 법인세는 5년간 면제된다.

2004년 11월 남측에서 개성공단까지 4차선 도로가 완공돼 사용중이며, 한국전력에서 남측의 문산으로부터 전력을 연결하여 공급하고 있다.

통신은 한국통신이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현재 시범단지내 300화선이 개통됐고 본단지까지 운영될 경우 1만화선이 지원된다. 대부담의를 거쳐 이동통신 및 인터넷 개통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개성공단을 통관하는 각종 물자와 병문자의 통행증에 전자태그가 부착, 자동관리 됨에 따라 통관 · 통행 절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good luck



- 1 2006년 8월의 개성공단 전경
- 2 개성공단 내 한국통신지점
- 3 북측담국이 50년간 토지임차를 보증하는 토지이용증
- 4 각종 물자를 남고 남측 CIO에서 북측으로 가는 차량들
- 5 환하게 불을 밝힌 개성공단 야경

03 북측 근로자들의 '희망의 땅'



1

개성공단에는 2004년 11월 북측 근로자 255명이 첫 채용된 이후 2006년 11월 현재 9,7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좋은 근무환경과 복지여건 등으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표정도 초기와는 달리 눈에 띄게 밝아지고 옷차림 또한 화려해졌다.

workers

2006년 11월 현재 개성공단에는 남측 노동자 800명, 북측 노동자 9,700여명 등 총 10,500명이 근무하고 있다.

북측 근로자의 최저 임금은 월 50달러로 주 6일제 48시간 근무이며 연장 및 야간근무 면 수당이 지급된다. 임금 인상률은 연 5%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기휴가는 연 14일, 출산휴가는 150일(유급 60일)을 보장한다.

북측 근로자의 채용은 개성과 인근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출국이 총괄하고 남측 기업이 추가로 인터뷰를 실시한다. 북측 근로자의 5명중 1명이 초급대학 졸업 이상 학력자로 개성공단에 대한 고학력자들의 관심이 대단함을 볼 수 있다.

북측 근로자는 매일 개성공단이 제공하는 30대 이상의 통근버스로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옷차림이 달라지고 화장을 하는 등 생활수준이 높아졌다. 추가수당을 받기위해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자청하기도 한다.

근로자 수자는 월 평균 22%씩 늘어나고 있으며, 입주업체의 생산액도 매월 36%씩 증가하고 있다.

5

2006년 3월 동향조사표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총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남측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북측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 1 밝은 표정으로 출근하고 있는 북측 근로자들
- 2-3 시범단지 입주기업에서 작업하고 있는 모습
- 4 북측 근로자들의 일교에 웃음이 넘치고 있다
- 5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명세서, 북측 근로자들은 자신의 임금명세서에 직접 서명함으로써 임금을 확인하고 있다
- 6 시범단지 입주기업인 신원의 작업장 모습



2



3



6



03 북측 근로자들의 '희망의 땅'



recreation



training

북측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시범단지 입주 이래 1년 동안 크게 향상됐다. 높은 교육수준과 일에 대한 열정이 단시간 내에 생산속도와 품질을 만족할만한 수준까지 끌어올린 것이다. 개성공단만의 가장 큰 장점은 이처럼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이다.

북측은 1단계 100만평에 300개 기업의 입주가 완료되면 7만명의 근로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개성 이외 다른지역 주민의 채용을 검토하고 있다.

또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북측과 개성공단내 기술교육센터를 건립하여 연간 4,000명의 북측 근로자를 대상으로 13개 직종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술교육센터가 건립되면 북측 인력의 노동생산성을 단기내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려 입주기업의 교육훈련 비용을 줄여주고 원활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 1-2 북측 근로자들은 휴식시간을 이용, 체육·오락 등 각종 여가 활동을 한다
- 3 근무 중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체조를 하는 모습
- 4 컴퓨터교육을 받고 있는 북측 근로자
- 5 '주태상타'의 북측 근로자들이 기술교육을 받고 있다
- 6 신입직원 교육을 받고 있는 북측 근로자들
- 7 북측 근로자들이 소빙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

04 어떤 제품이 생산되나



15 개 업체가 입주한 시범단지에는 봉제 · 신발 · 기계부품 등 복합업종단지로 개발되었다. 2004년 12월 첫 제품을 생산한 이래 높은 품질과 우수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머지않아 개성공단의 제품들은 전세계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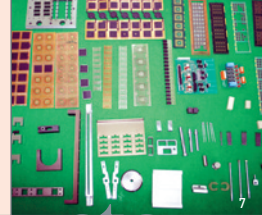


products



- 1 우리 정부와 아세안이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한 후 문서를 교환하고 있다. 남측은 아세안 싱가포르, EFTA와의 FTA협상을 체결하여 개성공단 생산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를 인정받았다.
- 2-3 첫 생산제품을 산적하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업체 직원들
- 4 국내외 유명 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개성공단 생산제품 (주방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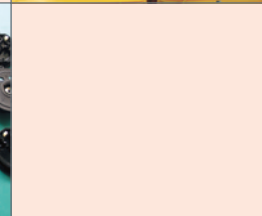
시범단지 입주기업은 (주)신원에벤에셀, (주)삼덕스타필드, (주)문창기업, (주)지에스, (주)태성하타, (주)티에스피, 로만손협동화공정, (주)솔루텍지에스, (주)제씨름, (주)개성대학, (주)소노코쿠진웨어, (주)개성부천공업, (주)호산에이스, (주)웅인이엔티, (주)매직마이크로 등으로 될 틀 없이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이들 업체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은 봉제 · 신발 · 반도체 · 전자 · 통신부품 · 플라스틱 제품 · 주방기기 · 시계 · 주얼리 등이다.



products



- 1 '주신원에베에셀'의 의류제품
- 2 '주문창기업'의 의류제품
- 3 '주심덕스타펠드'의 각종 신발류
- 4 '주태성하타'의 화장품 용기
- 5-6 '로만손합동화학공장'의 손목시계



- 7 '주티에스피'의 반도체 금형 부품
- 8-9 '주개성대학'의 자동차엔진 부품
- 10 '주개성부천공업'의 정기배선 부품
- 11 '주솔루텍지이스'의 자동차 전자부품 금형
- 12 '주지이스'의 반도체 부품 용기

에스제이테크 생산제품



marketing

의류업체인 (주)신원에베셀은 2006년 5월 개성공단에서 첫 패션쇼를 개최해 화제를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또 2006년 4월 중국 상하이의 상하이 마트에서 열린 '대한민국 섬유패션대전'의 '2006 봄-여름 패션쇼'를 통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의류를 세계시장에 본격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 1 '주신원에베셀'이 개성 현지에서 개최한 첫 패션쇼로 북측에서도 화제가 됐다
- 2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주신원에베셀'의 의류상품, 국내의 유명 백화점에서 판매돼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04 어떤 제품이 생산되나

1단계 본단지 분양과 2단계, 3단계 사업이 진행되면 노동집약 제품뿐만 아니라 복층의 고급인력을 활용한 전기·전자·IT 등 첨단산업까지 들어서 세계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global marketing



2



3



4



5



6

1-2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상해섬유패션대전' 행사에 참가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
 3-6 '주시원아메이셀' 등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이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Preview in Shanghai' 행사에 참가, 세계 각국의 관심을 끌었다

05 웰컴 투 개성공단!



개 성공단은 중국이나 베트남 등 경쟁지역보다 월등한 임금 경쟁력을 비롯해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개성공단을 방문한 해외 투자자들은 그 규모와 시설에 놀라움을 감추지 않는다. 개성공단의 경쟁력이 알려지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welcome

북측이 2006년 6월에 외국인인 방문을 허용한 이래 해외 귀빈들이 잇따라 개성공단을 찾았다.

2005년 하반기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EU 집행위원회, 아세안(ASEAN) FTA 협상팀, 주한 외교사절단, 미 하원의원, 미 하원 국제관계 전문위원, 미 국무부 수석차관보, 미국 한반도 전문가 등이 개성공단을 방문했으며, 외신기자단의 방문 취재도 여러 차례 있었다.

특히 2005년 11월에는 주한 EU 상공회의소 일행 70여 명이 방문했다. 이 방문단에는 주한 유럽대사관 EU 상공회의소 소속 투자기업 대표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해외 투자로서는 첫 대규모 행사였던 EU 상공회의소 방문은 소속 회원기업들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개성공단에 대한 유럽 글로벌 기업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

2006년 6월에는 일렉산더 바시바우 주한 미 대사관 개성공단을 방문했다. 바시바우 대사 방문 역시 개성공단에 대한 미 행정부의 관심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행사였다.



- 1-3 EU 집행위원회 일행이 개성공단을 방문, 공장을 둘러보고 투자환경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 4 미 국무부 수석차관보 일행
- 5 미 의회 전문위원·입법보좌관 일행

05 웰컴 투 개성공단!



2006년 6월에는 주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개성 현지에서 첫 투자설명회가 열렸다. 현대이산과 KOTRA가 주최한 이날 설명회에는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등 13개국 80여개 주한외국기업의 CEO 110명이 참가해 뜨거운 대북투자열기를 보여줬다.

현대이산과 KOTRA는 유럽, 아시아에서도 추기로 투자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1단계 개발구역 100만평 중 4만평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해 3~4개의 해외기업 입주를 유도할 계획이다.

유럽계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들도 개성공단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북측의 태도 변화도 눈에 띈다. 초기 외국기업에 대해 부정적이던 북측이 영어에 능통한 직원까지 내세우며 해외 투자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1-2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가 북측 여성통역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 3 미 하원의원 방문
- 4 주한 EU상공회의소 소속 회원이 개성공단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 5 개성공단을 방문한 외교사절단 일행

welcome





welcome



- 1 프랑스 기지단
- 2 미 하원 국제관계 전문위원
- 3-4 ASEAN FTA 협상팀



- 5 개성공단을 방문한 국내 중소기업 시장단
- 6 국내 중소기업시장단이 입주업체의 공정을 둘러보고 있다

06 개성공단은 평화특구

개성공단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다. 분단 60년만에 비무장 지대를 가로질러 도로가 연결되고, 전력·통신이 이어지고 서울에서 매일 출퇴근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개성공단은 지금 제품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peace



남과 북의 근로자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에서 긴장감은 찾아볼 수 없다. 개성공단 안에서는 남과 북을 떠나 스스럼 없는 친구이고 동료이다. 개성공단에는 편의점·소방대가 갖춰져 있고 우리은행 개성공단지점이 일찌감치 있다. 편의점에서도 은행에서도 북측 근로자가 반가운 인사로 손님을 맞는다. 남북 의료진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진료소도 운영된다. 남북 의사 각각 2명 등 12명의 의료진이 근무할 예정으로 월 평균 남측 500명, 북측 1천명의 노동자들이 진료혜택을 받게 된다. 또 2007년에는 남북 공동으로 시공한 정·배수정도 완공될 예정이다. 이곳의 물은 개성시민에게도 공급될 계획이다.



- 1 분단 60년만에 비무장지대를 뚫고 서울과 개성을 잇는 도로
- 2 하루 6만톤의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알고 저수지
- 3 남북이 공동으로 시공중인 정·배수장 공사 현장
- 4 남측 문산에서 개성으로 하루 120만kw의 전력을 공급할 송전탑 공사 현장, 뒤편에 경의선 철도가 보인다
- 5 그린테라스 개성병원 진료모습

cooperation



개성공단 사업을 위한 남북의 협력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는 통행·통관 절차 간소화 등 개성공단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마련하는데
머리를 맞대고 있다.



- 1 개성공단에 들어선 편의점. 이곳의 인기품목은 아이스크림이다
- 2 우리은행 개성공단지점
- 3-4 우리은행 개성공단지점과 KT 개성지사에서 북측근로자와 남측 직원들이 나란히 근무하고 있는 모습
- 5 개성공단지구 관리위원회에서 남북간 실무회의를 하는 모습
- 6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실무회의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생산과 수출 실적이 2006년 들어 급증하고 있다. 북측 근로자들의 숙련도가 향상되면서 생산도 안정되고 있다. 개성공단의 성장 잠재력은 이미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개성공단은 이제 남북 경협을 넘어서 동북아시아의 산업 물류 허브로 성장해 가기 위해 속도를 올리고 있다.

개성공단은 임금·분양가·노동력 등에서 중국이나 다른 동남아 지역에 비해 뛰어난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우리 정부는 서울의 금융·시장·인천의 물류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개성공단을 수도권과 연계된 산업단지로 개발하고 동북아지역의 진출을 희망하는 다국적 기업을 유치, 동북아 경제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2004년 개성공단 가동 이후 모든 외국과의 FTA협상에서 한국산 원자재를 60% 이상 사용한 제품에 대해 한국산으로 간주, 동일한 관세 관세를 부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싱가포르·유럽자유무역연합(EFTA)·아세안(ASEAN) 등은 우리의 요구를 수용, 개성공단 제품이 남측 생선품으로 인정받게 될 때 따라 해외시장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어둠의 끝에서 새벽은 밝아온다.
환하게 불 밝힌 개성공단. 남과 북이
맞잡은 손에서 희망의 새벽은 밝아오고 있다.

개성공단에 대한 외국인들의 방문이 늘어나고 개성공단의 경쟁력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외국 기업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다.

특히 유럽계 기업인들은 인건비와 물류 등 모든 면에서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 개성공단을 둘러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으며 중국과의 비교우위에도 훨씬 높은 점수를 줬다.

비록 전락물자 반출문제와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문제 등 일부 난관이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단계 100만명 내에 외국인 전용단지까지 조성되고
2, 3단계 개발이 완료되면 개성공단은 기술집약·첨단단지로 변신, 예상보다 훨씬 빨리 세계적 공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